

제 13 장

생명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암 8: 11-12).

아모스는 시골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 있는 사해 근처의 작은 마을 드고아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벨엘로, 왕의 궁정과 궁정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땅은 그의 말씀의 무게로 진동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모스가 설교한 것과 국가의 당시 상태와의 사이에 얼마나 심각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는 심판을 설교했는데, 국가는 번영의 최고 절정에 있었고 국력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은 웃시야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유능한 통치자 중의 하나였으며, 오십이년 간을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사십 일년

아모스 8장을 봅시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11~12절). 자,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예의 심판 황폐의 심판, 죽음의 심판 중에서 가장 절정에 있는 두려운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심판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시편 74:9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인 아삽의 탄식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랜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때, 백성들에게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심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때는 정말로 슬픈 날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어투를 여러분은 아모스에서 거둬 거둬 보시게 됩니다. “내가...다시는 용서치 아니 하리니”(암 7:8). 여러분은 이것을 아모스 8:2에서도 보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 하리니.”

여러분은 베에토벤의 교향곡 제 5번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의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향곡 전체를 통하여 반복되는 “다 다 다 다-”가 그것입니다. 그 소절은 우리들에게 심판의 선언,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상기시켜 줍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늘로부터의 응답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심판입니까!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 갔을 때, 그는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소생시켜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울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혼과 유령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사무엘상 28장에서 읽게 됩니다. 얼마나 처절한 외침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15절). 사무엘의 음성이 대답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으니, 그 다음날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처형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인들의 손에 넘기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와같은 외침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심히 고통스럽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셨고, 하늘에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가장 극적인 심판은 두려운 심판입니다. 잠간 한숨 돌리고 그것을 잠시 봅시다. 최초의 심판은 노예요, 유배요,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노예가 되고, 유배되고, 포로가 되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성 사도 요한은 황량하고 돌투성이인 밧모 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유기되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밧모 섬에 있을 때, 그는 커다란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목소리를 알아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그곳에는 부활 영생하신 주 예수께서 영광에 충만하여 서 계셨습니다! 요한이 주님 발 앞에 죽은 듯이 엎드리자, 주님은 당신의 오른 손을, 마치 몸으로 살아계실 때 여러 번 그러셨듯이, 요한에게 올려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불지어다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유배되건, 노예가 되건, 포로가 되건, 감옥에 갇히건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노예가 되는 것이 전능하신 분에 의한 심판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때인 것입니다.

둘째 심판은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황폐해지고 유실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읊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아주 불쌍하고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설령 화재나 홍수나 황폐함이나 재앙이나 파괴가 우리가 가진 것 모두를 쓸어 없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음의 노래는 코니아(Coniah)에 있는 병원에서 한 터어키 여인이 부른 것입니다. 코니아는 바울이 첫번 전도 여행 중에 설교했던 고대 이고니온의 현대명입니다.

저를 짓밟으소서, 오, 제 머리 위를 밟으소서
저를 공포로 소진하소서,
그대 죽음의 심판이여,
다만, 오 하나님, 그것으로써
제가 당신을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당신을 한 번 이 아래
머무르는 동안 뵈을 수 있다면

저를 불 속에 던지소서
아브라함처럼,
제가 가기를 원하는 땅에서
물리치소서, 모세처럼.
다만, 오 하나님, 그것으로써
제가 당신을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당신을 한 번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뵈을 수 있다면.

저를 십자가에 매소서, 예수처럼.
아니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제게 살게 하소서,
다만, 오 하나님, 그것으로써
제가 당신을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당신을 한 번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뵈올 수 있다면.

폐허든 황무지든 유실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옆에서** **계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받았는데 죽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는 하늘을 올려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늘이 열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광의 오른편에 서시고, 자기의 첫 그리스도교 순교자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어디서나 예외 없이 예수는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한 경우 만은 주님이 서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첫 그리스도교 순교자를 영광 속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스러운 말씀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데 죽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문학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의 하나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말이 담겨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딤후 4:6~8).

죽음에서의 승리

우리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시간은 그 강 저편에서 나팔이 울리고 우리가 집에 갈 그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죽음이 무슨 상관입니까! 죽음이 무섭고 잔인하고 두려운 것, 떨리는 것인 때는 오직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시고, 하늘로부터 아무 말씀이 없고, 위로부터의 어떤 약속도 없으며, 우리의 깊고 깊은 밤은 무덤의 흑암을 넘어서 환영하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뻗어지지 않을 때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대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비극입니다. 우리들은 생명의 생수인 말씀을 제쳐놓고 아무 물도 담을 수 없는 깨어진 물통을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책을 휴머니즘에 관한 교재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맹목적이고, 우연한, 우발적인 조직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선지자는 모세와 바울과 요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 대신에 찰스 다윈과 칼 마르크스와 지그문트 프로이트로 바꾸었습니다. 더욱 더 우리의 전 세계는 휴머니즘과 거짓 지성주의와 거짓 학문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우리의 현대 생활을 쥐고 있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휩쓸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문제 밖으로 도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증거를 도처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의 기사는 우리의 일간지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인용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바보 천치다. 그것은 중대한 실수였다. 연구에 의하면 성경은 지식도 없는 시대에 익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4c에 니케아에서 모아졌다. 성경의 저작들은 오늘날 아무런 역사적 신빙성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믿기 위해서

는, 우리들은 이 보잘것 없는 글들이 신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믿어야만 한다. 그것은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계곡이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의 신화와 전설을 잊어야 한다. 아니면 그저 신화나 전설이려니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의 학문적인 집단의 자유주의적 신학의 입장에 의해 휩쓸려서, 복음의 전도자들은 자기들의 강단에 서서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의 글을 「달라스 모닝 뉴스」(Dallas Morning News)에서 복사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랄스 배너(Rall's Banner)지의 편집자인 에른스트 조이너(Ernest Joiner)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그는 이전에 성경을 한권 샀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성경은 14달러 95센트다. 성경에는 773,692개의 단어가 들어 있다. 그것은 재미있는 독서가 될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가 잘 아는 목사들에게 주일 설교는 하루쯤 성경에 근거해서 해주기를 요청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 너무 경제학이나, 노동 통계나, 토양 보전, 정치학, 그리고 시대에 뒤진 찬성 캠페인을 과용해서 성도들에게 빈 공간이 생긴 날에 말이다.

이것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하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래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충돌의 도상에 있습니다. 아마도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제3차 세계 대전은 지금부터 2000년 사이에 인류를 멸망시킬 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요 사회 비평가이자, 불가지론자인 웰즈(H. G. Wells)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의 종말이 가까왔고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이자 수필가인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는 자기 생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표시했던 과학은 무너졌다. 마땅히 천국을 수립해 주어야 할 과학의 의도는 인류의 자멸로 곧바로 치달았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즐기는 부속품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과학적 진보가 마치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심리분석적 접근법과 과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Das Kapital*)에 나온 자본과 노동의 정치적 역학 관계가 변화되면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초군사적인 지도자들을 찾고, 전체주의적인 독재자들을 찾고, 수천 가지의 다른 만병통치약을 더듬어 찾을 때, 그것들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깊은 절망으로 이끌며 점점 파멸되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에 직면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가정과 국가와 세계의 국가들과 모든 인류 민족을 위해서, 주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의 모습입니까! 주님의 메시지와 말씀에로의 복귀 말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왕 요시아의 생애 중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 읽은 기억이 나십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은 왕에게 와서 고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에 내린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한 일대 부흥을 초래하였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할 때 주지사 말론(Marlon)씨는 아주 훌륭하고 인상적인 청동상을 자기의 고향인 폰카(Ponca)시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선구자였던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그 놀라운 조각 작품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감동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손에 그 여인은 어린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뒤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다. 그 안에서 행하라.’” 그것이 살아계신 말씀, 그리스도이든지, 쓰여진 말씀, 성경이든지 둘 다 말씀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말씀을 높일 때, 나는 쓰여진 말씀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쓰여진 말씀을 모욕한다면, 나는 정말로 살아계신 말씀에 불경을 행하며 깔보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풍성한 만나를 보내주소서! 생명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 아니라, 천사들의 양식을 주소서!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도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며 약속이 되십시오!